박요섭, 조선향 동역서신 39 (2018-06)

# 한 마음 한 뜻

One in Spirit and Purp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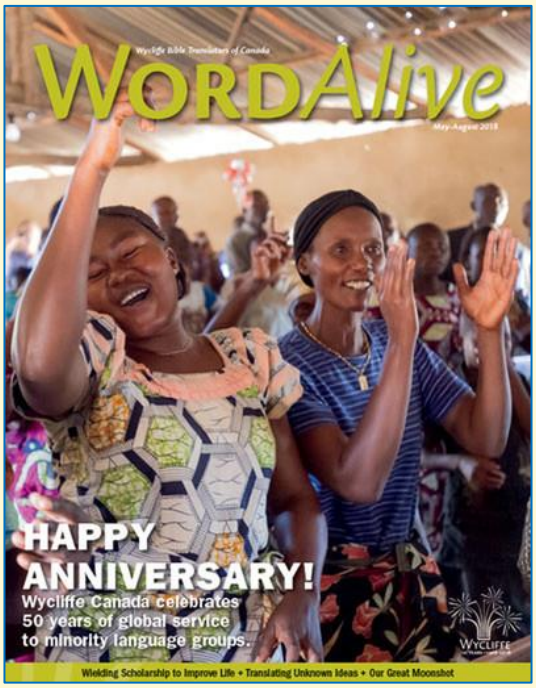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빌 2:2)

카니누와 말로 '생명의 양식'
이라는 뜻입니다. (요 6:48)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지난 1 년 동안 절실하게 경험한 말씀입니다. 물론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할 때도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겼지만,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었나 봅니다. "캐나다에서는 내 계획대로 조금은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작년 7 월 캘거리에 도착해서 알게 된 정보들은 어느 것 하나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을 때 그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저희가 원하는 것도 계획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아니 초대하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두고 초대해 주셨는데도 내 계획과 생각에 갇혀 그 초대가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초점을 맞추며 노심초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잠언 16:9 의 말씀이 단순히 글자가 아닌 내 삶으로 번역된 것이 감사하고, 이 말씀이 카니누와어로 번역될 그 날이 기다려집니다.




## 위클리프 캐나다 50 주년

올해 2018 년은 저희의 파송 단체인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 선교회가 창립 50 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동안 위클리프 캐나다 선교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77 개 성경번역에 직접 참여했고, 950 개 번역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350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캐나다 국내와 해외에서 80 개 언어 프로젝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저희 단체가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위클리프 캐나다의 영문 잡지 웹사이트인 wordalive.wycliffe.ca 에서 위클리프 캐나다의 50 년 사역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도

현재 사역 중인 위클리프 캐나다 선교사 중 저희처럼 직접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1/3 이고, 2/3 는 성경번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돕는 지원사역 선교사들인데, 이분들이야 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안식년을 저희 단체 본부가 있는 캘거리에서 보내면서 본부나 캐나다 내에서 지원사역하는 여러 선교사님을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안식년을 준비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과정 과정을 안내해 주고 도움을 주셨던 멤버 케어 선교사님들, 캐나다 내 의료보험과 세금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알려주신 보험과 재정담당 선교사님들, 저희 형편과 기도 제목들을 수시로 중보기도자들에게 전달하며 함께 해 주신 한인사무국 선교사님들, 모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 본부 사무실 모임에서 IT 분야를 담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알고 보니 이분들은 저희가 성경번역과 언어자료 수집/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 참여하신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저희와 번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전해드리자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이분들의 수고에 대해 더 자주 감사를 표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캐나다 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카니누와 사람들에게로

지난 3 월 알로타우 센터에 계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저희 마을 소식을 이메일로 전달받았습니다. 카니누와 번역 위원회 의장인 리바이(Livai)가 마을에서 배를 타고 알로타우 타운으로 나와 센터를 방문해 구두로 마을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카니누와 종족이 사는 마을은 전화가 되지 않기에 소식 한번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근 8 개월 만에 들은 소식이 좋은지 나쁜지의 여부는 전혀 상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가뭄 시기를 잘 보냈구나' '타운까지 나온 것을 보니 건강은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저희가 파푸아뉴기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알로타우 부두에서 저희 마을이 있는 굿인업 섬에 가는 배편을 찾아 선장에게 리바이 앞으로 쓴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답장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시간이 돈'이라며 바삐 움직이는 이곳의 삶, '있는 것은 시간뿐'인 듯 기다림이 익숙한 마을의 삶.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지난 1 년 이곳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 가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 저희와 카니누와 종족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동역자와 교회가 있기에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 선교회

4316 – 10 St. NE Calgary, AB T2E 6K3
전화: 1-403-250-5411 / 1-800-463-1143

**후원문의**

한국(GBT): 031) 421-5324
income@v2025.or.kr
북미: kroffice_canada@wycliffe.ca

지금 이 순간도 힘이 납니다. 최근에 만나 뵌 한 분은 저희 카니누와 종족을 위해 중보하고 있다며, 앰브로스 목사님을 비롯해 번역자인 속테스, 잭, 레비, 실버스터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힘이 되던지…. 익숙한 이름들이 아니라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되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지난 1 년 동안 하나님께서 카니누와 종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저희가 우둔해 미처 간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그 지경을 넓히셨고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이 기도만 하고 있다가 저희를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꿈만 같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기도를 받는 자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조 선교사 왼쪽 고막 수술(3 월)과 박 선교사 임플란트 치료가(5 월) 잘 마무리되어 건강하게 안식년을 마치게 하심을
- 파푸아뉴기니 워킹 비자가 나와서(6 월)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심을
- 안식년 동안 여러 교회와 동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카니누와 종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눌 기회들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과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심을

##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7 월 25 일 캐나다를 떠나 호주를 거쳐 8 월 3 일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합니다. 긴 비행과 환승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브리즈번에서 사역하며 동역자들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순종하도록
- 8 월 알로타우에서 머무는 동안 카니누와 번역자들 및 번역위원회와의 연락과 만남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사역지의 기후와 환경에 다시 적응할 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도록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14, 18-19, 새번역)**

늘 저희와 카니누와 종족을 기억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 주신 동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보해 주심에 힘입어 안식년을 잘 마치고 이제 파푸아뉴기니로 돌아가려 합니다. 위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빌려 저희도 동역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삶 되시길 바라며 저희 사랑도 가득 담아 보냅니다. 축복합니다.

2018. 6. 29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저희 연락처입니다.**
이메일: joseph-joyce_park@wycliffe.ca
j-j.park@sil.org.pg

카톡 ID: kaninuwa2011
스카이프 ID: wonderful.peace